

[ 경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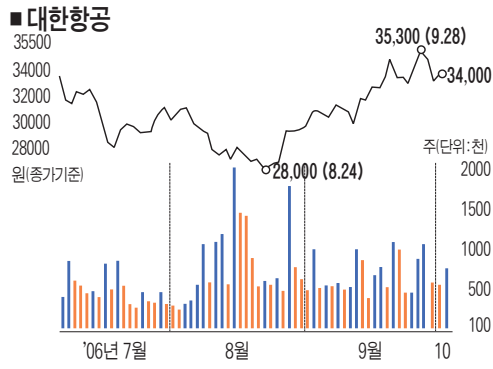
교보증권 박종서 광주지점장은 대한항공과 휴맥스를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다. 두 종목 다 최근 2~3개월동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여건이 호전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지점장은 대한항공은 배럴당 60달러이하로 떨어진 국제유가와 원화강세가 주가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고, 휴맥스는 내년에 상용화 예정인 인터넷TV의 법률조안이 이달중 마련되는 등 인터넷TV 상용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와 원화강세가 주가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고, 휴맥스는 내년에 상용화 예정인 인터넷TV의 법률조안이 이달중 마련되는 등 인터넷TV 상용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유가 하락·원화 강세로 상승 인터넷TV 상용화 최대 수혜

## ■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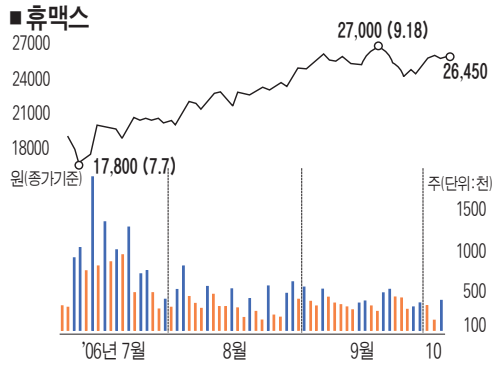
국내 1위의 항공운송업체. 저가 항공사의 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1위의 항공운송업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국제선 여객부분의 수요 증가와 비즈니스 탑승객 비중 증가, 아시아 지역 IT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매출액 등 외형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기 정비부분의 권위자인 미국의 오버홀 앤 메인テナンス로부터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우수 정비성과 항공사'로 선정돼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유가안정과 원화강세 등 영향으로 지난 8월부터 주가가 강세로 전환돼 올들어 두차례 저항 가격대로 작용한 3만5천원선에 육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중국 최대 종합유통회사인 시노트랜스 에어와 중국 국내 및 국제선 항공화물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항공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중국시장 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아 항공물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



장에서의 성공여부가 향후 성장세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실적을 위해선 중국시장에서의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국내 IT 생산기지가 점차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국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화물부문에서 대한항공의 입지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경쟁 강화로 중국노선의 요금인하 추세도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에 부담을 줄 것이라 지적되고 있다.

## ■ 휴맥스

디지털위성방송 수신기 전문기업으로 매년 업종 평균의 4배가 넘는 큰 폭의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다. 인도의 위성 셋톱박스 시장과 유럽의 케이블 시장에 새로 진출하고 독일 프리에르 방송사에 대한 LCD TV 공급으로 외형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분기에 비해 41.6%나 증가한 2천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매출처는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발생하는 고화질 셋톱박스 판매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세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국내 셋톱박스 시장으로 케이블TV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고 인터넷TV도 내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이들 두가지가 휴맥스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인 디지털TV와 위성디지털오디오방송(DAB) 부문이 4분기 이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셋톱박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규사업이 성장세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차입금 중심의 차입구조가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디지털전자 수출입·무역흑자 9월 사상 최대 기록

지난달 디지털전자의 수출과 수입, 무역흑자가 월별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8월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디지털전자 수출은 월별 기준으로 처음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108억8천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6% 늘어났다. 또 수입은 54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디지털전자 무역흑자는 54억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0% 많아졌다. 산자부는 지난달 디지털전자의 수출·수입·무역흑자 모두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디지털전자 수출은 834억5천만달러로 11.8%, 수입은 455억2천만달러로 10.2%, 무역흑자는 379억달러로 13.9% 각각 증가했다. 지난달 디지털 수출은 평판디스플레이(181.4%), 반도체(28.6%), 무선통신기기(38.4%), 컬러TV부품(40.4%) 등의 증가세가 힘입어 대폭 늘어났고 지역별로는 동유럽(97.6%), 중남미(81.8%)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디지털 수입은 월별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자응용기기(-23.3%), 전자관(-33.3%), 견전지(-19.9%), 축전지(-11.4%) 등의 수입이 줄어 3개월 연속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 “투자의 효율성 높으려면

###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없어야

재경부 진단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투자의 양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야 한다” 재경부는 8일 내놓은 ‘생산성과 규제완화 간 연계관계’자료에서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정보기술(IT)부문 투자가 IT 활용부분의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지 못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 IT부문 투자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00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에 비해 높은데도 여전히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배경 중에는 ‘칸막이식’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0~2004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1인당 GDP 1만달러대)에 있었을 때와 비교해도 이를 선진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20달러 이상이었으나 한국은 9.4달러(1995~2004년)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연합뉴스

### 농어업인 건보료 지원 개선 추진 역대 고소득자 지원 대상서 제외

현재 역대 고소득을 올리는 농어민까지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농업의 소득 등 고액 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개선책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농림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이면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중 보건복지부와 협의의 거쳐 법적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농업의 소득 등으로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린 농어민 287명이 이 사업대상에서 포함돼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받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10가구 중 9가구 생명보험에 가입

우리나라 10가구 중 9가구가 생명보험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생명보험 가입률이 높고 보험료는 월 평균 37만원 가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회사는 전국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제11차 생명보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생명보험 가입률이 89.2%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조사 때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미국 78%(2004년), 일본 87.5%(2006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1976년 1차 조사 때 생명보험 가입률 24.1%에 비해서는 3.7배 높아진 것이다. 우체국보험과 농수협공제를 제외한 민영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은 85.7%로 3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민영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4.4건으로 2003년 3.8건보다 늘어났으며 4건 이상 가입가구는 58.4%, 6건 이상 가입가구는 27%를 차지했다. 또 가구당 보험료 지출액은 월 평균 36만8천원, 연 평균 441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2%에 해당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생명보험 가입률을 보면 40대(90.2%), 30대(88.8%), 50대(8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연합뉴스

## 자동차·화학·통신·음식료 업종 등 국내 간판기업들 매출액 세계 1위업체의 ‘3분의 1’

### 한국은행 분석 자료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매출액에서 세계 1위 전자업체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화학, 통신, 음식료 업종의 국내 간판기업 매출액은 세계 1위업체의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은행이 2005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내 업종별 매출액 1위업체와 포춘글로벌(Fortune Global)500에 랭크된 매출액 세계 1위 업체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심의 지난해 달러화 환산 매출액은 52억5천만달러로 스위스 네슬레(732억2천만달러)의 7.2%에 불과했다. 통신서비스업 부문에서 KT의 매출액은 167억5천만달러로 일본NTT(943억5

천만달러)의 17.8% 수준이었고 화학부문에서 LG화학 매출액(105억3천만달러)은 독일 바스프(532억2천만달러)의 19.8%에 그쳤다.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은 553억5천만달러로 일본 도요타(1천762억8천만달러)의 31.4%, 미국 제너럴모터스(GM, 1천582억2천만달러)의 35.0%에 머물렀다. 포스코는 한때 세계 1위를 넘보기도 했으나 2005년 기준 매출액은 당시 세계 1위업체인 프랑스 아르셀로(418억5천만달러)의 61.4% 수준인 256억8천만달러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763억8천만달러로 독일 시에메스(939억3천만달러)의 81.3%, 미국 IBM(911억3천만달러)의 83.8%로 세계 정상에 가장 근접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폴더형 ‘블랙베리폰’ 시판

삼성전자가 8일 블랙베리 휴대용 세계시장에 T모바일을 통해 선보인 폴더형 블랙베리폰(SGH-T719). ‘블랙베리(Black Berry)’는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로,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하는 즉시 자동으로 알려줘 외근 중에 급한 업무용 이메일을 놓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준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8일 블랙베리 휴대용 세계시장에 T모바일을 통해 선보인 폴더형 블랙베리폰(SGH-T719). ‘블랙베리(Black Berry)’는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로,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하는 즉시 자동으로 알려줘 외근 중에 급한 업무용 이메일을 놓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준다. /연합뉴스

## “한은·산은 등 국책은행들 200억원대 골프회원권 보유”

### 국회 국감 자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방안 경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한국은행과 산은, 기업,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200억원대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이 8일 이들 4개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모두 10개 구좌에 걸쳐 시가 38억6천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개 구좌는 뉴욕, 도쿄, 홍콩의 골프장 회원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은행은 7개 구좌(37억9천만원 상당), 기업은행은 14개 구좌(97억원 상당), 수출입은행 5개 구좌(39억2천만원 상당)의 국내 골프장 회원권을 각각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측은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통화위원들이 골프회동을 통해 시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외 골프장의 경우 사용횟수가 매우 미미하다”며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이어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비롯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상반기 적자보전용 국채 이자 1조9천억

### 재경부, 국감 자료 연간 지급이자 육박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적자보전용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돈이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로 올해 상반기에만 1조9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급이자인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 1998년 적자보전 국채가 처음 발행된 이후 이자지급 규모를 보면 1998년 1천억원, 1999년 1조5천억원, 2000년 1조8천억원, 2001년 1조9천억원, 2002년 1조7천억원, 2003년 1조7천억원, 2004년 1조8천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

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보전 국채발행 잔액은 2002년말 26조4천억원, 2003년말 29조4천억원, 2004년말 31조9천억원, 2005년말 40조9천억원, 2006년 6월말 48조9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상반기 중 7조9천500억원을 발행했으나 하반기에 추가 발행을 통해 올해 연간 한도인 9조3천억원 잔액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예산에도 9조원의 적자보전 국채발행을 잡아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인텔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0	062-601-7203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CGI 전문인력양성 운영용원(직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1	062-654-3623
(주)글랜드	일반현직 스루가이드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2	062-227-4403
(주)그린텔	KTF유포매퍼블리셔 지점직 모집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0/12	042-223-4900
(주)디자인센스	과장급 디자인 팀원 모집	대졸/경력3년	1800~2000	10/12	062-384-6200
(주)엔지테크	병원프로그램 개발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675-8750
한국광기술원	LED/반도체조명연구분야 연구원 수시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605-9125
엠포시스템	총무팀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970-3512
(주)천년약속	영업관리 사무원 구인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0/14	062-610-5255
일진통신기술	경력 여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15	062-654-0222
(주)한진디엔비	기계 제작 기능직 구인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15	062-953-4510
넥삼스코리아	국내영업 대졸 신입,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11-721-9050
삼창기업	호남사업소 경영비공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20	031-458-8866
(주)투루텍	피워빌드C# 개발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0/20	062-575-8870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3 11 24 38 39 44	26	1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9,719,465,400	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781,376	37
3 5개 숫자 일치	1,202,607	1,347
4 4개 숫자 일치	53,073	61,045
5 3개 숫자 일치	5,000	985,655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5조 703871
2	5억	5조 703870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38870
5	1만	각조 874
6	2천	각조 57
7	1천	각조 93